

부산·경남 전파 포교에 '전인차'



개국 20주년을 맞은 불교부산방송은 불자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작, 지역불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특집공개방송의 일환으로 진행된 안국선원의 '일문일답' 진행 장면. 수불 스님(사진 오른쪽)은 지난 2월 1일 불교부산방송 사장으로 취임했다. 사진 왼쪽은 아나운서를 겸하고 있는 지은아 편집제작부장.

불교부산방송 2월 1일 개국 20주년 맞아

불교부산방송이 2월 1일로 개국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5년 개국, 2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부산의 지역 방송으로 지난 20년 동안 포교 시사 교양 등 지역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지역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있다.

개국 당시부터 불교부산방송에서 근무해온 지은아 편집제작부장은 "부산의 불자들은 오래전부터 불교방송 설립을 꿈꾸어 오다. 마침내 스님과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 1989년 12월 26일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 발기인회를 개최했다. 당시 추진위원장에 범어사 주지 흥교 스님, 집행위원장에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이윤근 씨, 추진본부장에 박순곤 씨를 선출해 설립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1995년 개국과 함께 부산불교방송은 부산, 김해 등 5개 시와 양산군 등 8개 군을 가청권으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주파수 FM 89.9MHz, 3kW의 출력으로 '반야의 샘' '열린 아침, 열린 정보' '부산 경남 뉴스' 등 10%의 로컬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규방송을 송출해 불교방송을 기다리던 부산·경남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국과 함께 탄생한 '반야의 샘'은 지방 최초의 본격 종합 포교프로그램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불교계 동향과 불교문화계 소식, 그리고 신행담 등을 소개해 왔다. 이후 2001년 가을 개편 때 'FM 89.9 좋은 인연입니다'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07년 봄부터는 '무명을 밝히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명을 밝히고'는 지역 불교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애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밖에도 '부산경남 라디오830' '행복한 오후' '유쾌한 저녁길 2부' 등 자체 프

로그램을 제작 지역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법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불자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특집공개방송'은 각 사찰을 찾아다니며 '일문일답' '우리 절, 우리 스

남' 등의 제목으로 진행됐다. 지난 6년 동안 부산 경남 일대의 사찰 30여 개를 직접 찾아가다니며 소개해 지역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3년부터는 'BBS마인드힐링콘서트'를 부산시민회관에서 진행해 불자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1회는 박상민 비유티 아운 소찬휘 등이 출연했고 2회에는 김혜연 설운도 추가열 등이 출연했다.

특히, 1회 방송 때는 성금을 모아 지역의 미소원 허허원 등 불교 봉사단체에 기부하기도 해 훈훈함을 더했다.

부산불교방송은 불교방송 최초의 지방사로 향후 개국할 타 지방사의 모델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지은아 부장은 "불교계가 강한 부산, 경남 지역의 청취자들이 지역 불교계 동향과 올바른 불교교리에 대한 감응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불교계 동정을 빠르게 알려주고 스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불교계를 지키는 첨병으로서 보도 기능도 활용하고자 하였고, 불교방송에 주파수를 맞춘 청취자들을 위해 불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교양, 오락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불교 부산방송은 진주중계소 개소 준비와 사옥 이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 부장은 "지난해 7월 진주중계소 주파수(FM 88.1MHz) 개소 허락을 취득하고 11월 진주 중계소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부산 경남 400만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교부산방송은 현재 동구 범일로에 위치한 사옥을 북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월 1일 신임사장으로 취임한 수불 스님을 중심으로 신사옥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995년 개국 당시 부산불교방송 사옥 모습



부산불교 방송 제작 현장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찰나'의 거장... '결정적 순간' 앵글 속에

앙리카르티에-브레송 사진전

앙리카르티에-브레송 사진에 대해 '내면의 침묵-영혼의 시선 영원한 풍경' 이라고 표현해 놓은 글귀를 읽게 되었다. 얼핏 들기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데 그의 사진은 영원할 수 있던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그 영원한 풍경이란 무엇일까' 라는 화두를 들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디자인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10주기 회고전,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전 영원한 풍경' 전시장에 들어섰다.

'20세기 현대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 '세기의 눈' '사진의 톨스토이' '사진미학의 교과서'. 프랑스 출신의 작가 앙리카르티에(1908~2004)를 수식하는 단어는 화려하다. 그래서 그는 살아 있을 때는 신화였고 죽어서는 사진역사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앙리카르티에 풍경 사진들은 다분히 명상적이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한 시대의 문제를 대변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인 '브리, 프랑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정적인 풍경이지만 역설적으로 결정적 찰나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앙리카르티에는 1968년 5월 프랑스가 사회변혁 운동으로 급진적인 변혁을 겪는 동안 사건의 현장을 찍는 대신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프랑스의 풍경을 휴머니즘적 시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끝없이 흐르는 길과 울창한 나무들은 터널을 형성하고 있다. 길은 선택의 여지없이 하나뿐인데 끝도 없이 구부러지며 이어지고 길 위의 흔적만이 사람의 자취를 느끼게 할뿐이다. 이 사진은 심리 테스트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 '하트', '카오스' 등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카르티에 브레송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난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랐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어떻게 앙리카르티에는 어떻게 인생의 모든 순간을 결정적 순간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는 오랜 관찰 끝에 순간을 포착, 완벽한 구도를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 인위적인 것을 배제했으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완벽한 구도를 만들어냈다고 하니 그의 순간 포착 능력은 가히 천재적이라 할 수 있다.



명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브리, 프랑스'. 앙리카르티에는 1968년 5월 프랑스가 사회변혁 운동으로 급진적인 변혁을 겪는 동안 사건의 현장을 찍는 대신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프랑스의 풍경을 촬영했다.

"모든 인생사가 바로 결정적 순간"

원근속 풍경, 명상적 분위기 전달 나무 터널 사진... 심리테스트 사용

김강경 제 18분 일체동관본(一體同觀)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얽힌 중국 당나라 덕산 스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스님은 주금강이란 별명이 불을 정도로 금강경에 통달했는데 남방에서 참선 공부하는 선지식들이 문자를 세우지 않고(不立文字)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直指人心] 자성을 보아 부처(見性成佛)가 되게 하므로 사람들이 구름 떼 같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스님은 이런 마구니들을 쳐부수어 불법을 바로 잡겠다고 자기가 손수 지은 <금강



생자르 역, 유럽 광장, 파리, 프랑스. 어떤 것도 연출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진은 완벽한 구도를 만들어낸다.

경 소초)를 짊어지고 남방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가던 중 출출하던 차에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나게 된다. 점심 삼아 먹으려고 떡을 팔라하자 노파는 대뜸 스님 등짐에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스님은 금강경을 해석한 <금강경소초>가 들어 있다고 답하니 노파는 이렇게 말한다.

"금강경에 있는 구절을 묻고자 하니 대답하면 떡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떡을 줄 수 없습니다."

"다 물어보시오."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디에다 점심을 두시겠습니까?"

노파의 한 마디 선구에 스님은 탄막혀 버렸다고 한다.

과거라는 시간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현재의 마음도 사라지므로 잡을 수 없다. 현재의 마음도 순간순간 흐르고 있으며 시시각각 흘러가 버려니 잡을 수 없다.

2004년 8월 3일, 수많은 '결정적 순간'을 목격했던 앙리카르티에 브레송은 그의 나이 96세에 평온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묘비에는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서, 오직 우리의 죽음만이 불잡을 수 있을 따름이다. 사진은 영원을 밝혀준 바로 그 순간을 영원히 포획하는 단두대이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사진을 통해 영원의 순간을 잡을 수 있지만 그 순간마저 사라진다는 진리를 사진의 거장은 알았든 것일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그의 사진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예술의 영원성은 믿고 싶어진다. 정혜숙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난방필름 전기판필 대비 최대 30% 절감 ↓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북 : 010-9298-9608	강남 : 010-5097-08291	인산 : 010-6610-2337
울산 : 010-4597-5577	양산 : 010-6294-6126	서산 : 010-7301-5854
진주 : 010-3583-7139	평창 : 010-6433-8612	창원 : 010-8008-1110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9구 인자구 20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회색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명(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영사용) 탈필이 방식

노명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간
▶ 방식, 탈필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